

국내 · 외 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

• 2001.7.8 도금공장 화재

8일 09:5분 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한 알루미늄 도금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일부와 도금 완제품 등을 태워 1억9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천장에서 ‘뽕’ 소리와 함께 불길 이 일기 시작했다”는 공장 인부들의 진술로 미뤄 전기 합선이나 기계 과열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2001.7.18 비닐하우스촌 화재

18일 18:32분 경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남태령 고개 부근 비닐하우스촌 ‘전원마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비닐하우스 31개 동 가운데 13개 동을 태우고 19:54분 경 꺼졌다.

불이 나자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립식 앵글 비닐하우스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모두 3억6천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90여 가구 3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인근 학교에서 밤을 보냈다. 목격자 L씨는 “비닐하우스촌 중심부에서 갑자기 ‘뽕’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날 불로 사당 사거리와 인근 이수교 일대가 퇴근길에 큰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전원마을’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으로 180여 가구 4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11월을 비롯해 과거에도 4차례나 전기누전 등으로 큰 불이 났었다.

• 2001.7.19 차고지 화재

19일 02:50분 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 K여객 차고지에서 불이 나, 주차해 둔 버스 4대를 태워 7천6백여 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35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차고지 경비원 배 모씨는 “순찰도중 주차해 둔 버스에서 ‘뽕’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123번 시내버스 4대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는 버스 4대의 앞부분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방화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2001.7.23 창고 화재

23일 02:55분 경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의 한 중고 소파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와 인근 I섬유 등 3개 섬유공장을 모두 태우고 5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불을 처음 목격한 I섬유 직원 정 모씨는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나가보니 소파 보관창고에서 난 불이 양쪽으로 인접한 섬유공장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파공장 대표 백 모씨 등을 상대로 정

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액수를 조사중이다.

• 2001.8.3 모텔 화재

3일 02:58분 충남 천안소방서 상황실에 다급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신부동 '꿈의 궁전' 여관 인근의 다른 여관 운영자라고 밝힌 이 남자는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 밖으로 나와보니 '꿈의 궁전' 2층 유리창이 깨지고 연기가 새나오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천안소방서는 곧바로 구성소방파출소 펌프차 3대를 비롯해 물탱크차 1대, 화학차 1대, 고가굴절사다리차 1대와 두정소방파출소 펌프차 및 물탱크차 각 1대씩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출동지시를 받은 소방파출소 직원 20여 명이 3분 여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난 불은 건물 내 덕트시설을 타고 지상 5층으로 번져 여관 전체에 연기가 가득 찬 뒤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방관들은 다시 소방서로 지원을 요청, 03:09분 관할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에 대기하고 있던 펌프차 10대와 물탱크차 1대가 추가로 출동했으며 이들 차량과 소방관들은 10여 분 후 현장에 도착해 진화작업 및 투숙객 유도 대피 작업에 투입됐다.

이때부터 불길이 잡히기 시작해 04:00시 경 완전히 꺼졌으나, 그 사이 4-5층에서 잠들어 있던 J씨 등 6명의 투숙객은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유리창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고 K씨 등 27명도 상당량의 가스를 마셔야만 했다.

• 2001.8.6 선박 화재

6일 17:00시 경 울산 동구 방어동 H조선에서

제작 중이던 한 광석 운반선의 선실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인부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H조선의 하청업체인 T산업과 K산업 노동자 6명이 선실 안에서 배관작업과 도색작업을 하던 중 용접기의 불티가 튀면서 폭발해 일어났다.

H조선 관계자는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아 소방서에 신고하고 자체소방대를 급히 출동시켰으나 인화물질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져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불은 울산 동부소방서와 자체소방대에 의해 30여 분만에 꺼졌다.

• 2001.8.8 공장사택 화재

부모들이 야간작업을 하러 나간 뒤 공장 안 사택에서 잠자던 어린이 2명이 불에 타 숨졌다. 8일 23:50분 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 S섬유 사택에서 불이 나, 임 모군 형제가 숨졌다. 불이 났을 당시 임 모씨 부부는 사택에서 5m 떨어진 공장 안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임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는 사택에서 갑자기 연기가 솟아나와 작업호스로 물을 뿌렸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3년 전 S섬유에 취직하면서 가족 4명이 방 2개가 딸린 사택에서 생활해왔다.

경찰은 불이 날 때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 방안에서 별다른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 2001.7.18 미 열차 화재

미국 볼티모어 시내의 한 터널에서 18일 유

독성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회사 CSX의 대변인은 사고열차 8칸에 염산 등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으나 탈선 및 화재원인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소방대원은 사고가 난 터널 내부가 온통 검은 연기로 덮여 있다면서 “연기 중에 유독가스가 아직 남아 있다”고 전했다.

주 관리들도 볼티모어시로 통하는 주요 도로들을 폐쇄하고 운전자들에게 볼티모어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2001.8.6 인도 정신병원 화재

인도 타밀 나두주(州)의 이슬람 성지 마을인 에르와디의 사립 정신병원에서 6일 새벽 불이 나 침대에 결박돼 있던 수용자 2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 관리들이 말했다.

이날 새벽에 불이 나 삼시간에 병동으로 확산되자 18명이 건물 밖으로 피신했으나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수용자 가운데 사망자들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에르와디는 정신병 치료에 영험한 것으로 알려진 성지 마을로 모두 30여 개의 허름한 정신병원 시설이 있으며, 수용자들이 잠을 잘 때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몸을 결박하고 있다.

• 2001.8.8 방글라데시 화재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외곽의 7층짜리 의류공장에서 8일 누전에 따른 화재 경보가 울려 계단으로 대피하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과 소방 관리들이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실제로 불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나, 상당수가 여성인 수 백명의 근로자들이 계단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부분 압사하거나 실족사 했다고 전했다.

• 2001.8.18 필리핀 호텔 화재

18일 04:30분(한국시각 05:30분) 경, 필리핀 케손시 매너호텔에서 화재가 발생, 7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현지 방송은 희생자 대부분이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독교 단체 회원들이며, 대부분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케손시 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의 원인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3층 창고 천장에서 일어난 누전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불과 2시간 여의 화재에서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난 것은 호텔 측이 모든 창문에 보안용 쇠창살을 설치해 투숙객들이 나오지 못하는 등 소방시설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갑자기 내린 비로 불길은 일찍 잡혔으나 살인적인 연기가 호텔 내부를 급습했고 화재경보장치가 없었으며 비상구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망자를 늘린 원인이었다고 소방당국은 분석했다.

현지 화재조사반장은 “화재가 나자마자 정전이 되고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채우자 투숙객이 목욕탕으로 들어가 창문을 깨고 나가려 했으나 쇠창살이 가로막아 대부분 목욕탕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호텔은 몇 달 전 소방당국에서 화재예방 시설 부족 등을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한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

情報資料 案内

- 우리 협회 위험관리센터에서는 위험관리에 관한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정보회원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780-8111(조사분석팀)]

자료 형태	코드	자료 형태	코드
도 서	BB	팸플렛, 카탈로그 등	PP
정기간행물 기사	JJ	시청각 자료	VV
보고서(논문집 포함)	RR	복사 자료	CC
규격·코드	SS	신문기사	NN

■ 주요 신착자료 (2001. 6. 1 ~ 7. 31)

자 료 명	잡 지 명	출판연월	페 이 지	등록번호
住宅用 火災·가스漏泄警報器의 普及과 展望에 대하여	防災시스템	2001.01	31 - 34	JJ032819
Dependence of Flashover on Assumed Value of the Discharge Coefficient	Fire Safety Journal	2001.02	25 - 36	JJ032804
文化財 建物の 植物性 지붕의 燃燒特性	消防研究所報告	2001.03	17 - 27	JJ032674
Insurance Covered	Fire Prevention	2001.04	16 - 17	JJ032731
다급해지는 危機管理教育의 體制 確立	高 壓 가 스	2001.05	36 - 40	JJ032702
Select the Best Model for Two-Phase Relief Sizing	C E P	2001.05	56 - 64	JJ032715
Arson, a European Plague	Face Au Risque	2001.05	25 - 26	JJ032724
防災 보디커버의 性能 等に 관한 研究	防 災 뉴 스	2001.05	02 - 12	JJ032808
제조물책임(PL)법 개요 및 위험분석방안	안 전 기 술	2001.06	14 - 17	JJ032685
화학공장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구축	N I C E	2001.06	290-292	JJ032695
소방닥터-Skipping 현상이란	소 방 안 전	2001.06	54 - 55	JJ032713
Massive Fireball at Oil Refinery	F I R E	2001.06	21 - 21	JJ032747
Selling Safety :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	위 험 관 리	2001.06	24 - 25	JJ032765
전력케이블 열화진단의 신기술	전 기 안 전	2001.06	58 - 62	JJ032768
Major Refinery Incident Highlights	Fire International	2001.06	22 - 23	JJ032773
Effective Collaboration				
장치산업에서의 설비위험도평가(RBI)	가 스 안 전	2001.06	07 - 12	JJ032780
化學物質의 安全情報 提供시스템	安 全 工 學	2001.06	148-152	JJ032784
특수 방호공간에서 가상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화재거동에 관한 수치적 연구	한국도시방재학회지	2001.06	157-163	JJ032815
樹脂로 된 透明 어깨 안마봉의 收斂火災事故	フ ェ ス ク	2001.06	35 - 38	JJ032833
화재시의 인간행동과 피난안전성평가	소방기술정보	2001.06	17 - 25	JJ032842
千葉縣四街道市 建設會社 従業員 寄宿舎火災	近 代 消 防	2001.07	17 - 20	JJ032824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교육제도 비교	안 전 보 건	2001.07	51 - 57	JJ032850
安全確認시스템에 基礎한 安全의 責任	Safety Engineering	2001.07	13 - 18	JJ032857

위험관리정보 제115호

발 행 일 : 2001. 8/9(격월간)
 발 행 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전 화 : (02)780-8111 FAX : (02)783-4094
 홈페이지 : <http://www.kfpa.or.kr>
 인 쇄 처 : 새한문화사 (02)713-5649